



워크숍 참가기

## 협력과 실천으로 만들어낸 의미 있는 변화

제13차 한·일 PAOT 방법을 적용한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강현선

대구지역본부  
보건관리국 선임과장



2025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노동안전위생센터(TOSHCH)에서 열린 제13차 한·일 PAOT(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 방법을 적용한 참여형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해외 연수교육에 참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훈련(PAOT)에 대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양국 참가자가 협동하여 방문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참여형 훈련도구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교육은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와 도쿄노동안전위생센터, 일본 노동과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2009년부터 한·일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례를 아시아산업보건포럼에서 한국 대표로 발표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 그룹활동 1

방문 사업장의  
좋은 점과 개선점 찾기

### 그룹활동 2

중소기업 참여형  
개선활동 지원 방안

### 그룹활동 3

훈련도구 작성과  
발표 준비

### 그룹활동 4

훈련도구  
발표와 평가

### 그룹활동 5

워크숍 전체 평가와  
향후 과제



## 1일차

### 도쿄에서의 첫 만남

한국팀 16명은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하네다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나가오 선생을 비롯한 일본 측 관계자들의 안내로 지하철을 이용해 숙소로 이동했고, 짐은 별도의 차량으로 안전하게 운반했다. 저녁에는 도쿄 카메이도의 호르문구이 전문점에서 마련된 환영 만찬에서 한일 참가자들이 첫인사를 나누었다. 바삭하고 고소한 내장 요리를 즐기며 서로의 어색함을 빠르게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2일차

### 본격적인 PAOT 워크숍 시작

이튿날 아침, 호텔 로비에 집결해 도보로 연수교육장인 도쿄노동안전위생센터로 이동했다. 현장에서는 한·일 퍼실리테이터와 참가자들이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고, 히라노 토시오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워크숍이 공식 개회했다.

#### 그룹활동 1 방문 사업장의 좋은 점과 개선점 찾기

우리가 방문한 '에도가와제관주식회사'는 근로자 38명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히라노 토시오 이사장이 산업보건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4개 그룹으로 나뉘어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좋은 사례와 개선점을 찾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복리후생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 4조에 속해 활동했다. 이 사업장은 매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작업장 개선 전·후 사진을 게시해 구성원들과 시각적으로 소통하며, 노사가 함께 만든 '안전 10훈'을 휴게실에 게시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활동이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그룹활동 2 중소기업 참여형 개선활동 지원 방안

'중소기업의 참여형 개선활동에서 양호사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루 요시카와 박사의 기조강연이 진행된 후,

이를 바탕으로 그룹활동이 이어졌다. 각 그룹은 방문 사업장에서 발견한 좋은 점과 개선점을 3가지씩 도출해 발표하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덕분에 예상 외로 뛰어넘는 유익한 의견들이 나와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 그룹활동 3 훈련도구 작성과 발표 준비

직장환경 4개 영역에 맞춘 주제별 액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훈련도구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퍼포먼스를 포함한 20분 이내 발표를 준비했다. 저녁 식사 이후에도 곧바로 연수교육장으로 돌아와 밤 10시까지 리허설을 이어갔다.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이 팀을 이루어 협력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가며 준비하는 과정은 도전이 필요했지만, 매우 즐거웠고 팀워크의 가치를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

## 3일차

### 실전 발표와 아시아 워크 헬스 포럼

전날 밤 10시까지 이어진 리허설로 피로가 있었지만, 아침 8시부터 그룹활동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한 일 참여형 개선 우수사례 사진 콘테스트와 방문 사업장에 적합한 맞춤형 액션 체크리스트 항목을 선정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사진 콘테스트에서는 참여형 개선 활동을 통해 발굴한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며, 저비용으로 쉽게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소개되어 큰 영감을 주었다.

### 그룹활동 4 훈련도구 발표와 평가

그룹별로 완성한 훈련도구를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통해 내용을 쉽게 전달했다. “안전한 운반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달걀 이동 퍼포먼스, “CEO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게임”을 활용한 창의적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밝혔다. 발표 후에는 우극현 회장의 심사평과 함께 굿 프레젠테이션 표창 및 선물이 수여되었다.

### 아시아 워크 헬스 포럼

점심시간 후, 아시아 워크 헬스 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참여형 산업보건 활동에 대해 각각 2사례씩 발표하며, 양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위험성평가 액션 체크리스트 개발·적용 사례(코카콜라음료 김동하 박사)
- ▲감정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적용 사례(대한산업보건협회 강현선 간호사)
- ▲노토반도 지진 재해 시 석면에 관한 위험성평가(구마모토가쿠엔대학 조사나카지 시게하루 교수)
- ▲스포츠 이벤트 개선 활동을 촉진하는 참여형 개선(SMILE) 실천 사례(준텐도대학 야마다 야스유키 교수)

특히 필자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미술치료 접목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10회기 이상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낸 성과와 객관적 지표를 통한 스트레스 저감 효과를 공유했다.



그림활동 5 워크숍 전체 평가와 향후 과제

마지막 활동으로, 이번 제13차 한·일 워크숍에 대한 전체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의 공식 일정을 마친 뒤, 한국팀은 하코네로 이동해 온전을 즐기며 그 동안의 피로를 풀고,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일 양국의 참여형 직장환경개선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긍정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동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PAOT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히 적용하고 확산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우극현 회장님과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력과 소통, 경험의 공유 덕분에 이번 워크숍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

